

제 6 장 안 덕 면



안덕면(安德面)

안덕면의 동쪽은 상예동과 하예동에 접하고 서쪽은 대정읍 상모리, 안성리, 구역리, 제주시 한경면과 경계를 이룬다. 남쪽은 바다이고 북쪽은 제주시 한림읍과 애월읍이다.

안덕면 지역에는 오래전 선사시대 사람들이 거주했던 삶의 흔적을 여러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¹⁾ 이를 살펴보면

- 해안 사람발자국 및 각종 동물 발자국 화석 산출지가 대정읍 상모리 및 안덕면 사계리 해안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1만 5천년전의 구석기인이 생활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 사계리 유물 산포지는 신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BC3000년 ~ BC1000년 어간의 유적들이다.
- 화순리 고대마을 유적, 창천리 고인돌, 창고천 고인돌 등은 탐라 형성기인 BC200년 ~ AD200년 어간의 유적들이다. 이러한 선사시대(先史時代 AD1년이 전)나 원사시대(原史時代 AD1년 ~ AD300년)를 지나 문헌상으로 안덕면 지역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조에 들어 와서 이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을 중심으로 하고 전지역을 동·서도현(東·西道縣)으로 나누어 현(縣)을 설치하였다. 그 서도현에는 귀일(貴日), 고내(高內), 애월(涯月), 곽지(郭支), 명월(明月), 차귀(遮歸), 산방(山房), 예래(猊來), 홍로(烘爐)현을 설치했으니 이는 제주목이 속현이었고 그중 산방현이 오늘날 안덕면 지역이었다.

그 후 고려시대가 지나고 조선이 개국 되었다.

1416년(태종 16) 5월에 도안무사(都按撫使)오식(吳湜)과 전판관(前判官)인 장합

1) 남제주군지 1권 P.445, 467~470. 남제주군 2006
남제주문화 유적 P.10. 남제주문화원 2007

(張合)이 조정에 아뢰어 제주목(濟州牧)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그와 더불어 대정현에는 예래 현, 산방현, 차귀현을 예속시켰으니 안덕면 지역은 대정현 관할이 되었다.

1789년(정조 13) 호구 총수에 의하면 대정읍 지역은 안덕면과 통합되어 있었고 현(縣)의 우측에 있다 하여 우면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다 1870년경에 안덕면은 우면에서 분리 독립하였고 현의 중앙에 놓여있으므로 중면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안덕면과 마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 1789년(정조 13) 호구총수

右面：현 안덕면 관내인 通泉里, 柑山里, 洞水里, 礮川里, 自丹里, 今勿路里와 현 대정읍 관내인 東城里, 西城里, 上摹瑟浦里, 下摹瑟浦里, 日果里, 敦浦里 가 포함되어 있다.

○ 18세기말 제주읍지의 삼읍방리조

右面：현 안덕면 관내인 今勿路里, 自丹里, 犯川里, 洞水里, 柑山里, 通泉里와 현 대정읍 관내인 東城里, 西城里, 上摹瑟浦里, 下摹瑟浦里, 日果里, 頓浦里 가 포함되어 있다.

○ 1872년(고종 9) 제주삼읍전도

中面：沙溪里, 德修里, 和順里, 甘山里, 倉川里, 通泉里, 光清里

○ 1904년(광무 8) 제주목의 삼군 호구 가간총책

中面：倉川里, 上川里, 柑山里, 桶泉里, 和順里, 廣坪里, 東光清里, 光清里, 德修里, 沙溪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의 변천

中面：倉川里, 上倉里, 上川里, 柑山里, 和順里, 德修里, 沙溪里, 東廣里, 西廣里, 廣坪里. 이 마을 명칭은 오늘의 법정리와 일치한다.

2)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 I P.61~84

그리고 1870년경에 대정현에 중면을 신설 하면서 지금까지 우면에 소속되었던 사계리, 덕수리, 화순리, 감산리, 통천리, 광청리가 중면 관할이 되었고 이때 좌면에 있던 창천리를 중면으로 이관한 것으로 보아진다.³⁾

그 후 중면이 된 후 안덕면의 연혁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1906년(광무 10) 9월 21일 중면 풍헌을 중면면장으로 개칭하였고, 약정(約正)·직월(直月)을 폐지하고 영수원(領收員)·서기(書記)를 두었다.
- 1910년 10월 공포된 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장을 판임관대우 국가관리로 임용하였고, 그 사무소를 서광리에 개설하였다.
- 1914년 3월 1일 정의·대정 양군이 제주군에 통합되어 전라남도 제주군 중면이 되었다.
- 1915년 5월 1일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중면이 되었으며
- 1912~1918년까지 해안면을 따라 일주도로 개설로 행정·경제·교육의 중심기능은 일주도로변으로 점차 옮겨졌다.
- 1917년 면사무소를 서광리에서 감산리로 이전하였으며
- 1935년 4월 1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 1939년 11월 12일 면사무소를 감산리에서 화순리로 이전하였다.
- 1946년 8월 1일 도제(道制)실시에 따라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이 되었다.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행정시)안덕면이 되었다.
- 2007년 7월 24일 화순리 1961번지에 신축 이전하였다.
- 2009년 11월 30일 현재 안덕면의 면적은 105.55km²며 인구는 9,824명이다. 지역내에 법정리는 10개이고 행정리는 12개이며 자연마을은 19개이다. 그리고 도서(島嶼)로는 사계리에 형제도1(兄弟島)과 형제도2가 있으며 면적은 53,006 m²이다.

3) 안덕면지 총괄편 P.419, 안덕면 2006

현재 대정읍의 법정리와 행정리는 다음과 같다.

법 정 리	행 정 리
화 순 리	화순리
사 계 리	사계리
덕 수 리	덕수리
서 광 리	서광동리, 서광서리
동 광 리	동광리
광 평 리	광평리
상 천 리	상천리
상 창 리	상창리
감 산 리	감산리
창 천 리	창천리, 대평리

1. 화순리의 설촌유래

화순리는 제주의 남서부에 위치한 마을이다.

동쪽으로는 감산리, 서쪽으로는 사계리와 덕수리, 북쪽으로는 상창리가 경계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바다와 접해있는 해안마을이다.

마을 동쪽으로는 월라봉이 펼쳐져 있고 서쪽으로는 산방산이 북쪽으로는 논오름이 위치해 있는 남저북고(南低北高)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명당자리로 불리워져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정착된 곳이다.



화순리 해안사구(海岸砂丘)에는 패총(貝塚)과 유물이 발견되었다. 유물들은 오래 전인 기원전후 시기에 송국리형 주거지를 바탕으로 조성된 대규모 거점취락지역으로 137동의 취락유적과 유물이 대량발굴되고 앞으로는 북서쪽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거주인은 주거, 생산, 분묘, 제의, 폐기, 생업활동역 등 공간 분할이 명확히 이루어져있는 마을로서의 통제와 질서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집단체계화 되었던 마을이 어떻게 발전되고, 이동되었는지는 밝힐 수 있는 근거와 자료가 없고보면 화순리 설촌에 대해 산방현 치소와 왕자터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추정해 볼 수가 있다.⁴⁾

1300년(忠烈王 6) 탐라에 15개 현을 설치할 때 그 중에 산방현이 있었다. 산방현치소가 화순리 지역이라고 추정할 때 치소와 함께 설촌이 되었다면 그 설촌시기는 1300년으로 내다볼 수가 있다.

양왕자(梁王子)터를 근거로 하는 설촌설은 화순리 333번지 일대에 ‘왕자터’

4) 제주화순리유적 발굴조사보고(본문1). (재)제주문화예술회관. 2009

가 있고 왕자가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았다는 추정이다. 이에 따르면 화순리 설촌은 탐라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1400년 전에서 성주(星主)와 왕자(王子) 제도가 폐지된 1402년(太宗 2)까지로 600여년 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다음은 원세조(元世祖)의 후손이기도 한 운남국 양왕(雲南國梁王)은 신흥 명나라에 의해 운남의 수도인 곡정(曲靖)이 함락되자 자살하였다. 명에서는 그의 태자인 백백(伯伯)과 그 아들 육십노(六十奴) 등을 제주에 유배시켰다. 그 적소(謫所)가 바로 화순리 ‘왕자터’ 라고 한다. 그 시기를 미루어 보면 1300년대 말부터 조선 초기인 1400년대 초까지 설촌 역사를 600여년 전으로 소급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세가지 논제 중 어느 하나도 역사적 실체를 확실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설이 전해지고 있음을 제시할 뿐이다.

그 후 1400여년 전인 신라 초기부터 600여년 전인 고려 말까지 이 지역에는 현재 씨족들이 아닌 주민들이 한때 설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거주민들 선조가 이 지역에 입주한 것은 1609년 창령성씨(昌寧成氏) 성은진(成恩珍)이 영은동으로, 1690년대에 밀양박씨(密陽朴氏) 박언일(朴彦逸)이 동수동(洞水洞:골물, 화순리 웃동네)으로, 1696년 제주양씨(濟州梁氏) 양수담(梁遂淡)이 범천동(犯川洞:화순리 482번지 일대)으로, 1715년 충주지씨(忠州池氏) 지응해(池應海)가 서동(西洞) 만주왓(화순리 1854번지 일대)으로 각각 입촌하였다. 그 이후 강씨, 고씨, 이씨, 김씨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⁵⁾

화순리 옛이름은 범내(犯川), 벗내, 범내왓, 벗내왓, 그리고 골물(洞水:화순리 웃동네)이라 불렸다. 1653년 「탐라지」 (대정현, 산천)에 대포(大浦:한개)로, 1702년 「탐라순력도」 (한라장축)에는 범포(犯浦:범내)로, 1709년 「탐라지도」 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범천촌(犯川村:범내마을), 동수촌(洞水村:골물마을, 골물마을) 등으로 불리어왔다. 또한 19세기 중반 「탐라지초본」 (권4, 대정현, 산천)과 「탐라지」 (남만리본) 등에는 변천(樊川:변내)로 표기되었다.⁶⁾

이렇게 범천동과 동수동은 독립적인 마을로 존속해 오다가 1840년(헌종 6) 초

5) 화순리지. 화순리지편찬위원회. 2001

6)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반에 마을 비중이 변내쪽으로 쏠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범천(犯川)이라는 한자음이 좋지 않다고 하여 한학자들에 의해 서로 화합하고(和) 순하게 살라(順)는 의미로 화순리라 하였다. 이래서 대정군 우면 화순리가 되었다.

1870년(고종 7)에 대정군에 중면(中面)이 신설되자 대정군 중면 화순리가 되었다.

18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제주군 중면에 예속되었고 1915년 제주도(濟州島) 중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가 되었다.

현재 화순리는 본동과 곤물(곶물)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화순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가 되었다.

2. 사계리의 설촌유래

사계리는 동쪽은 화순리(和順里)이고 서쪽은 대정읍 인성리(仁城里)와 상모리(上募里)이다. 북쪽은 덕수리(德修里)와 대정읍 안성리(安城里)이고 남쪽은 푸른 남해바다이다.



사계리는 금물로리(今勿路里)라고 했으며 이는 이두(吏讀) 표기인데 ‘금물’은 검다는 뜻이고 ‘로(路)’는 길을 뜻하므로 즉 검은길을 따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이 금물로리 지경은 당초에 마을이 형성되었던 곳이고 지금의 윗동네인 상동대로변이다.

사계리는 바닷가에 사람 및 동물 발자국 화석이 있고 신석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의 점렬문토기 등의 생활유적이 다수 발견되는 유물 산포지가 있다. 선주족(先住族)들의 정주와 이동에 관한 연관기록 또한 없으나 발견유적 등으로 미루어 보면 사계리에는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추적이 가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500여년 전 자은골(장은골) 일대에 김해김씨(金海金氏)가, 큰물동네 일대에는 제주양씨(濟州梁氏)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사계리는 1653년(孝宗4) 발행된 「탐라지」(대정현, 산천)에는 금로포(金路浦)로, 1702년 「탐라순력도」와 18세기 중반에 나온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흑로촌(黑路村:검은길마을)으로, 1872년 「제주삼읍전도」와 「대정군지도」등에는 사계리(沙溪里:사계마을)로, 일제시대 지도에는 사계리(沙溪里), 토기동(土基

洞:토깃골), 산방동(山房洞:산방골) 등으로 나와있다.⁷⁾

1780년경 대정현의 방리조에는 금물로리는 대정현 우면에 속하였고 1784년(정조 8) 부터 아래쪽에 위치한 사계(沙溪)와 그곳에서 5리쯤 위쪽에 위치한 신당(新堂:새당)이 같은 금물로리면서도 사실상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이래서 1840년(헌종 6, 도광 20)에 구 경민장(具擎民長)과 이 존위(李尊位)가 마을이름을 사계리로 부르게 하여 달라고 진정적인 첩정(牒呈)을 대정현에 올렸다. 그러자 대정현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회시가 내려 1840년부터 사계리라 하였고 그보다 북쪽에 있던 신당은 덕수리라 불렀다.⁸⁾

이 때는 대정현 우면에 속하였으나 1870년경 중면이 신설되면서 이제는 대정군 중면에 들어갔다.

사계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가지 설이 있다.

그 하나는 1840년에 깨끗한 모래를 시냇물에 비유하여 사계(沙溪)라 하였다는 설이 있고, 또 다른 이설은 이 마을을 맨처음 설촌한 이가 김(金)씨임을 잊지 않으려는 뜻으로 이 마을 출신 구염조(具念祖)가 유학의 거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호를 따 마을 이름을 지었다고도 한다

이 마을은 한때 사계와 동사계로 나뉘어 있었다가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에 사계리로 통합되면서 제주군 중면에 예속되었다. 그 다음해인 1915년 제주도(濟州島) 중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 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가 되었다.

현재 사계리는 대전동(大田洞), 송죽동(松竹洞), 용해동(龍海洞) 등 3개의 자연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7)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8)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이에 따라 사계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가 되었다.

3. 덕수리의 설촌유래

덕수리는 안덕면의 맨 서쪽에 위치하여 일주도로와 서부관광도로로변에 인접해 있는 마을이다. 동쪽은 화순리(和順里)이며 북동쪽은 서광동리(西光東里), 북서쪽은 서광서리(西光西里), 남쪽은 사계리(沙溪里), 서북쪽은 대



정읍 구억리(九億里), 서남쪽은 대정읍 안성리(安城里)와 접하고 있다.

1625년(仁祖 3)경에 김해김씨(金海金氏), 진주강씨(晋州姜氏), 남평문씨(南平文氏) 등이 지금의 곳바구리를 중심으로 고분밭 근처에서 목축 및 농경사회를 이루며 정착하였다.

그 뒤 점차적으로 송씨(宋氏), 양씨(梁氏), 이씨(李氏), 윤씨(尹氏), 박씨(朴氏), 고씨(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큰가름(東洞)과 덕수골(西洞)로 마을이 점점 커졌다고 한다. 또 1770년경에는 도련동(道淵洞, 上洞)에 사람이 입주하면서 3개의 자연 마을로 마을이 형성되었다.⁹⁾

덕수리의 옛 이름은 쇠당 또는 새당이라 하였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 쇠당촌(刷堂村:쇠당마을)으로, 18세기 말의 고문서에는 쇠당(刷堂)으로, 「탐라지초본」(권4 대정현, 과원)과 19세기 중반의 호적중초 등에는 신당(新堂:새당)으로, 「제주삼읍전도」와 「대정군지도」 및 「대정읍지」 등에는 덕수리(德修里)로, 일제 때 50,000분의 1 지도에는 덕수리(德修里), 동동(東洞:동동네), 도이지동(道伊訖洞:도리못골) 등으로 표기되었다. 이 새당마을은

9)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1784년(정조 8)에 금물로리(今勿路里:금을질믄을, 사계리)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¹⁰⁾

그래서 새당은 자단리(自丹里)로 되었다가 1831년(순조 31)에 상동은 자단리로 남고 하동은 다시 새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840년(헌종 6)에는 새당이라는 호칭이 불길하다 하여 송문규(宋文奎)씨가 더욱 부촌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덕수리(德修里)로 마을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이래서 대정현 우면에 속하였다가 1870년경 중면이 신설되자 이제는 대정군 중면 덕수리가 되었다.

1910년 8월 28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제주군 중면에 예속되었고 1915년 제주도(濟州島) 중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가 되었다. 현재 덕수리는 동동(東洞), 서동(西洞), 도이연동(道伊淵洞:道淵洞)으로 나누고 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덕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설촌 초기부터 농기구의 일종인 ‘보습’을 제작하는 <토불미> 혹은 <청탁불미>가, 공예 기능공들이 들어옴으로써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부업 형태로 발전하여 주민 생활근간이 되었다. 또한 이 지역의 고유한 민속이 오래도록 원형을 잃지않고 보존된 마을로 <토불미> 말고도 연자매를 만드는 과정을 노래한 <방앗돌 굴리는 노래>가 전수되었고, 지붕을 이는 짚줄을 놓을 때 불리워지는 <일소리> 등도 전해지는 등 민속문화의 보고이다.

10)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4. 서광서리의 설촌유래

서광서리는 동쪽은 서광동리(西光東里)와 동광리(東光里), 서쪽은 대정읍 구억리(九億里), 북쪽은 한림읍 금악리(今岳里), 북서쪽은 한경면 저지리(楮旨里), 남쪽에는 덕수리(德修里)가 자리잡고 있다. 안덕면의 서쪽 끝마을이며 중산간지역에 위치해 있다.



구전에 의하면 서광리는 700여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 때 중원대륙은 이미 원이 장악하였고, 1231년(高宗 18) 몽골군이 침입을 개시하였다. 전 세계가 몽골군에 굴복하였지만 고려 무신정권의 지배자인 최이(崔怡)는 이에 굴하지 않고 1232년(高宗 19) 6월에 수도를 강화도(江華島)로 옮기고 장기항전의 각오를 굳혔다. 그러나 전 국토가 몽골군에 유린되어 강토가 초토화되고 민생이 피폐해지자 하는 수 없이 1270년(元宗 11) 원에 굴복하고 개경환도를 단행하였다. 그러자 삼별초(三別抄:左別抄, 右別抄, 神義軍)는 몽골에 굽힐 수 없다고 항거하고 진도를 거쳐 최후의 거점인 제주도 항파두리(缸坡頭里: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웅거하였다. 이들은 온 도민을 동원하여 항파두리 내, 외성과 환해장성을 쌓았다. 그 가혹한 노역에 견디다 못한 고씨, 김씨, 양씨가 탈출하여 자단리(自丹里) 곳 일대에 숨어 살았으니 이것이 서광리 설촌의 시작이었다.¹¹⁾

서광리의 옛이름은 자단리, 광챙이, 서광챙이다.

1625년(인조 3)경에 동광리와 서광리는 자단리(自丹里)로 불리다가 1872년(고종 9)에는 광청리(光淸里)가 되었다. 1898년(光武 2) 동광리는 광청리에서 분리하여

11)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신청리(新淸里)라 하였고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2년에 광청리를 서광리(西廣里)라 하였다.

이 때 광(光)이 광(廣)이 된 것은 광챙이오름이라 하는 광해악(廣蟹岳)의 광(廣)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정군 중면 동광리(東廣里)와 서광리(西廣里)는 각각 제주군 중면으로 통합되었다.¹²⁾

1915년 제주도(濟州島) 중면이 됨과 동시에 서광리(서광서리 관전동)에 면사무소가 설치되었다가 1917년에 감산리로 이전하였다.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고 1938년에 광해악(廣蟹岳)을 중심으로 동쪽은 서광1구, 서쪽은 서광2구로 분구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서리가 되었다.

1948년 4·3사건이 발발한 후 군 토벌대가 11월 초순에 서광리 관전동(官田洞)에 들이닥쳐 불을 질렀다. 전전긍긍하던 주민들은 11월 20일경 소개령이 내리자 해안마을로 내려갔으나 화순리에서 많은 주민이 희생을 당하였다.

1949년 봄, 서광1구(동리), 건곤동(乾坤洞)에 성을 쌓고 서광, 동광 주민들이 올라와 움막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서광2구(서리)는 1950년 봄에, 동광리는 1953년 4월에야 간장리(동광리내)로 재건하였다.¹³⁾

1951년 1월 22일 육군 제1훈련소가 대정읍 모슬포지역으로 이동해 온 후 광해악(廣蟹岳) 앞 서광리 983, 985번지, 서광리 741번지에는 하사관 교육대를 설치하여 부사관급 간부들을 양성하였다.¹⁴⁾

1963년 10월에 건곤동(乾坤洞) 일대를 서광동리로, 사수동(蛇首洞), 진부동(進富洞), 응전동(應田洞) 일대를 서광서리로 분리하였다.

현재 서광서리는 사수동, 진부동, 응전동 등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12)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13) 제주4.3유적. 제주도/제주4.3연구소.

14)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남제주문화 창간호. 남제주문화원. 2004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서광서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가 되었다.

5. 서광동리의 설촌유래

서광동리는 광해악(廣蟹岳)을 사이에 두고 서쪽 서광서리와 나누어졌다.

동쪽은 상창리, 남쪽은 화순리, 남서쪽은 덕수리(德修里) 그리고 북쪽은 동광리(東光里)다. 구전에 의하면 서광리는 700여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 때 중원대륙은 이미 원이 장악하였고, 1231년(高宗 18) 몽골군은 고려에 침입을 개시하였다. 전 세계가 몽골군에 굴복하였지만 고려 무신정권의 지배자인 최이(崔怡)는 이에 굴하지 않고 1232년(高宗 19) 6월에 수도를 강화도(江華島)로 옮기고 장기항전의 각오를 굳혔다. 그러나 전 국토가 몽골군에 유린되어 강토가 초토화되고 민생은 피폐해지자 하는 수 없이 1270년(元宗 11) 원에 굴복하고 개경환도를 단행하였다. 그러자 삼별초(三別抄:左別抄, 右別抄, 神義軍)군은 몽골에 굽힐 수 없다고 항거하고 진도를 거쳐 최후의 거점인 제주도 항파두리(缸坡頭里: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웅거하였다. 이들은 온 도민을 동원하여 항파두리 내, 외성과 환해장성을 쌓았다. 그 가혹한 노역에 견디다 못한 고씨, 김씨, 양씨가 탈출하여 툇단이(自丹里)곶 일대에 숨어 살았으니 이것이 서광리 설촌의 시작이었다.¹⁵⁾

서광리의 옛이름은 자단리, 광청이다.

1625년(인조 3)경에 동광리와 서광리는 자단리(自丹里)로 불리다가 1872년(고종 9)에는 광청리(光淸里)가 되었다. 1898년(光武 2) 동광리는 광청리에서 분리하여 신청리(新淸里)라 하였고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2년에 광청리를

15)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서광리(西広里)라 하였다. 이 때 광(光)이 광(広)이 된 것은 광쟁이오름이라 하는 광해악(広蟹岳)의 광(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정군 중면 동광리(東広里)와 서광리(西広里)는 각각 제주군 중면으로 통합되었다.¹⁶⁾

1915년 제주도(濟州島) 중면이 됨과 동시에 서광리(서광서리 관전동)에 면사무소가 설치되었다가 1917년에 감산리로 이전하였다.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고 1938년에 광해악(広蟹岳)을 중심으로 동쪽은 서광1구, 서쪽은 서광2구로 분구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동리가 되었다.

1948년 4·3사건이 발발한 후 군토벌대가 11월 초순에 서광리 관전동(官田洞)에 들이닥쳐 불을 질렀다. 전전긍긍하던 주민들은 11월 20일경 소개령이 내리자 해안마을로 내려갔으나 화순리에서 많은 주민이 희생을 당하였다.

1949년 봄, 서광1구(동리), 건곤동(乾坤洞)에 성을 쌓고 서광, 동광 주민들이 올라와 움막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서광2구(서리)는 1950년 봄에, 동광리는 1953년 4월에야 간장리(동광리내)로 재건하였다.¹⁷⁾

1951년 1월 22일 육군 제1훈련소가 대정읍 모슬포지역으로 이동해 온 후 광해악(広蟹岳) 앞 서광리 983, 985번지, 서광리 741번지에는 하사관 교육대를 설치하여 부사관급 간부들을 양성하였다.¹⁸⁾

1963년 10월에 건곤동(乾坤洞) 일대를 서광동리로, 사수동(蛇首洞), 진부동(進富洞), 응전동(應田洞) 일대를 서광서리로 분리하였다.

현재 서광동리는 건곤동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16)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17) 제주4.3유적. 제주도/제주4.3연구소.

18)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남제주문화 창간호. 남제주문화원. 2004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서광동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가 되었다.

6. 동광리의 설촌유래

동광리는 동은 광평리(広坪里)와 상천리(上川里), 서쪽과 북쪽은 한림읍 금악리(今岳里), 남쪽은 서광리(西光里) 및 상창리(上倉里)에 접하고 있다.

동광리는 지금으로부터 360여년 전에 동광리에서 남쪽으로 1km 떨어진 만주동(만



주골) 일대에 임씨(任氏)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670년(憲宗 11)경에는 마을 서부에 광산김씨가 입주하여 삼(麻) 농사를 주로 하였으므로 삼밭구석(麻田洞)이라 하였다. 그 후 1700년대 제주양씨, 진주하씨 등이 지형이 어린아이가 춤을 추고 있는 형상과 같다 하는 무동이왓(舞童洞)에 정착하면서 마을은 더욱 커지기 시작하였다.¹⁹⁾

동광리는 원래 자단리(自丹里:동광, 서광)에 속해 있었고 옛 이름은 자단리(自丹里), 광챙이, 동광챙이다.

「대정군읍지」와 「대정지도」 등에 신청리(新淸里:새광챙이)로, 1872년 「제주삼읍전도」와 「대정군지도」 등에는 광청리(光淸里:광챙이)로 변경되었다. 광청리는 원래 대정군 우면에 속하였는데 1870년경 중면이 신설되자 이제는 중면 관할이 되었다.

1898년(光武2) 동광리는 광청리에서 분리하여 신청리(新淸里:새광챙이)라 하였다.

1904년 삼군호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摺冊) 대정군 중면에는 동광청(東光淸)으로, 일제강점기 지도에는 동광리(東光里), 무전동(舞田洞:무동이왓), 조숙개동

19) 4. 3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 제주4.3연구소.1990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²⁰⁾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2년 경에 동광리(東光里)를 동광리(東光里)로 개칭하였다. 이 때 광(光)이 광(廣)이 된 것은 광챙이오름이라 하는 광해악(廣蟹岳)의 광(廣)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정군은 제주군으로 통합되었고 이 때는 제주군 중면 동광리가 되었으며 1915년 제주도(濟州島) 중면에 관할에 들어갔다.

화전민들이 대다수였던 무동이왓은 관의 경제적 수탈에 항거하여 1862년(철종 13)에 임술농민봉기와 1898년(光武 2)에 일어난 무술농민봉기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또한 1918년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을 되찾겠다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마을은 일제시대 무동이왓에 100여 가구, 조수궤에 10여 가구, 사장밭에 3가구, 삼밭구석에 40여 가구, 간장리에 10여 가구 등 도합 160여 가구가 살던 큰 마을이었다. 또한 중산간 마을이지만 개화운동이 일찍 일어나 1925년경에 이 마을 주민 강위경(姜渭慶)씨가 광선사숙(廣善私塾)을 개설하여 숙장과 2명의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쳤다. 1939년에 와서는 다른 마을에서는 상상도 못할 무동이왓에 2년제 동광 간이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는 감산리에 있었던 안덕 공립보통 학교를 제외하고는 이 지방에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다. 부근에 있던 창천, 서광, 상천, 덕수, 색달 등지에서 학생들이 이 학교에 취학하였을 정도였다.²¹⁾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가 되었다.

1948년 4·3사건이 일어난 후 11월 15일 위치적으로 해안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마을에 갑자기 토벌군이 들이닥쳤다. 그 즉시 마을은 파괴되고 많은 주민들이 처참한 희생을 당하였다. 그래서 초토화된 이 마을은 폐동이 되었다가 1953년에 야 간장리만이 재건되었고 무동이왓, 삼밭구석, 조수궤 등은 잃어버린 마을이 되

20)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21) 4. 3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 제주4.3연구소.199

었다. 1951년 1월 22일 육군 제1훈련소가 대정읍 모슬포 지역으로 이동해 온 후 동광리에는 신병 제1숙영지와 하사관 교육대 제2숙영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1969년에 중산간 개발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소득증대 사업으로 ‘거새왓’에 양잠 개척단지를 조성하여 33가구를 입주시켰다.

그러나 양잠사업의 쇠퇴로 입주민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축산과 일반작목으로 전환하여 자립하게 되었다.

이제는 서부관광도로, 한창로, 산록도로 등이 개설되어 교통이 편리해짐에 따라 마을은 점차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동광리는 본동과 양잠단지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동광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가 되었다.

7. 광평리의 설촌유래

광평리는 안덕면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북동쪽은 애월읍 봉성리(鳳城里)이고, 북서쪽은 한림읍 금악리(今岳里)와 접하고 있다. 남동쪽은 상천리(上川里)와, 남서쪽은 동광리(東光里)와 경계를 이룬다.



이 마을은 해발 480m의 높은 지대에 형성되어 있어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마을 중 하나이다.

서기 1750년(英祖 26)경 현위치에서 조금 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조씨가 처음 들어와 살았다고 하여 '조가위', '조가궤', '조가동'의 이름이 있고 현존 지도에는 조가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 광평리 뒷동산은 고백이란 분이 살았다 하여 고백이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 후손은 한명도 광평리에는 살고 있지 않다.

그 당시에는 화전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어디론가 이주해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 뒤 굽통어귀(馬洞洞), '감남굴', '모살목' 일대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 당시 나라에서는 광평리 지역이 축산의 적지라 하여 국마장을 개설, 운영하였다. 따라서 광평리는 최초 화전민들에 의해 마을이 형성되었으나 뒤에 국마장의 설치로 부락세가 커지기 시작했다.²²⁾

22)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한림읍 동명리 출신이었던 정만석(鄭晩錫) 훈장의 행적을 보면 1900년(光武4)과 1904년(光武8)에 각각 광평리에서 훈장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이런 서당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인구가 이 곳에 정착하였을 것으로 보아진다.

광평리의 옛 이름은 넓은곳, 넓은술, 넓은드르다. 「제주삼읍도총지도」와 「제주읍지」(대정현지, 도로) 등에 광수(廣藪:넓은곳)로, 「제주군지도」와 「대정군지도」 등에 광림평(廣林坪:넓은곳드르)으로, 「대정군읍지」(방리)에 광평리(廣坪里:넓은드르마을)로, 일제시 50,000분의 1 지도상에는 광평리(廣坪里), 마통동(馬洞洞:물 통동네), 조가동(趙哥洞:조가워동네) 등으로 표기되었다.²³⁾

이 마을은 19세기 말 이전에는 자단리(自丹里:동서광리)와 광청리(光淸里:광청이)에 속해 있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통동, 조가동, 조숙동을 병합하여 광평리(廣坪里)라 하였고 제주군 중면에 예속되었다.

1915년에는 제주도(濟州島) 중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가 되었다.

근세에 이르러 목축이 성해짐에 따라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전입자가 늘어 4·3 사건 전에는 조가동에 40세대, 마통동에 20세대, 감남물에 4세대, 모살목에 5세대 정도 모두 70여 세대가 살아 큰 동네가 형성되었다고 한다.²⁴⁾

그러다가 1948년 4·3 사건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주민들은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가 1955년 ‘마통’어귀인 고베기동산 앞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재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2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지금은 본동(本洞)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23)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24) 향토지(남제주) 안덕지역. 제주대학교.1994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광평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가 되었다.

8. 상천리의 설촌유래

상천리는 동쪽은 색달동(穢達洞), 서쪽은 동광리(東光里), 남쪽은 상창리(上倉里), 남동쪽은 상예동(上猊洞)과 접하고 북쪽은 영아리오름(靈阿利岳)이다.



상천리는 구전에 의하면 옛날에 흰 사슴(白鹿)이 상천마을에 있는 궤에 서식하며 새끼를 낳았으므로 모룩밭 또는 백록동(白鹿洞)으로 불렸다고 한다. 230여년 전 조씨, 박씨, 김씨 등이 올리튼물동네, 비지남흘동네, 거머흘, 칫망에움, 큰빛대기집터 등에 정착하여 목축과 농사를 지음으로써 설동되었다고 한다.

1884년(高宗 21)의 수해와 1885년의 연이은 태풍으로 한림, 애월, 한경 등지의 해안마을 주민들이 대거 이주하여 마을이 급속히 확장되어 100여 호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자 하창리(下倉里:창천리)에서 수차례 같은 마을로 합칠 것을 시도하였으나 주민들의 정서상 독립된 마을로 남겠다고 하여 하창리와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884년(高宗 21)의 수해와 1885년의 연이은 태풍으로 한림, 애월, 한경 등지의 해안마을 주민들이 대거 이주하여 마을이 급속히 확장되어 100여 호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자 하창리(下倉里:창천리)에서 수차례 같은 마을로 합칠 것을 시도하였으나 주민들의 정서상 독립된 마을로 남겠다고 하여 하창리와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천리의 옛 이름은 모룩밭이다. 18세기 중엽에 발간한 「제주삼읍도총지도」에 부연(鼻淵:올리소)으로, 1899년의 「대정군읍지」(대정지도)와 「제주군읍지」(제주지도) 등에 상천리(上川里 : 웃내마을)로 표기되었다. 이리하여 대정군 중면 상천리가 되었다.²⁵⁾

25)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1910년 8월 28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정군은 제주군에 통합되었다. 1915년 제주도(濟州島) 중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가 되었다.

1948년 4·3사건이 발발하자 11월 13일 토벌대가 들이닥쳐 주택은 불에 타고 마을은 초토화되었다. 그 후 11월 23일 소개령이 내리자 일부 주민은 해안 마을로 내려가고 일부 주민은 산야에 은신하며 헤매다가 희생을 당했다. 이 마을이 복구된 것은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구역이 해제된 9월이었다. 그러나 올리튼물동네, 비지남홀동네, 거미홀은 영영 폐동되어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현재 상천리는 ‘모록밭’을 중심으로 형성된 본동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상천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가 되었다.

9. 상창리의 설촌유래

상창리는 동쪽으로는 상예동(上猊洞), 서쪽은 서광동리(西光東里), 북쪽은 상천리(上川里), 남쪽은 창천리(倉川里), 감산리(柑山里)와 화순리(和順里)에 접하고 있다.

이 마을의 지형지세를 보면 동쪽으로 ‘보름이’, 서쪽은 산방산(山房山), 북쪽은 병악(並岳), 남쪽은 군산(君山)이 자리잡고 그 사이 마을이 평평하고 넓게 자리잡고 있다.



풍수지리설로는 바둑판형이라 하여 보름이와 산방산이 바둑을 두고 병악과 군산이 남북에서 훈수를 하는 것과 같은 바둑판 형상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웃성구못’, ‘동성구못’, ‘서성구못’이 있어 생활용수로 활용되었고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이 마을에는 1755년(英祖 31)에 동남쪽에 있는 양아리쿰(明羅洞:상창리 458번지)에 진주진씨 진석범(秦碩範)이 들어왔고, 북쪽에는 군위오씨 오정규(吳廷揆)가, 상창리 동쪽인 개남산밭 일대에 제주양씨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 그 후에 김씨, 오씨, 이씨, 강씨 등이 입주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이 마을은 본디 창고천리(倉庫川里)에 속해있어 웃창고내라 하다가 1900년(光武4) 대정군에 진정하여 창천리에서 분리 독립하였다. 그래서 대정군 중면 상창리(上倉里)가 되었다.

1909년 1월에 행한 상창리 호구조사에 따르면 호수는 144호이며 인구는 남자 220명, 여자 290명으로 도합 510명이었다. 당시로서는 제법 큰 마을이었다.²⁶⁾

1810년 8월 28일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제주군에 통합되었고 1915년 제주도(濟州島) 중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안덕면 상창리가 되었다.

1948년 4·3사건이 일어나자 12월 9일 상창리에도 소개령이 내려 창천으로 피난을 했으나 일부 주민들은 희생을 당했다. 그러다가 1949년 5월에 상창리 중심부에 성을 쌓고 올라와 다시 재건하였다. 그러나 10여 호가 살던 대난도는 영영 폐동이 되어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현재 상창리는 본동과 신남동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상창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가 되었다.

26)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10. 창천리의 설촌유래

창천리는 안덕면의 동쪽 끝 마을이다. 창고천을 넘어 동쪽은 상예동(上猊洞)이고 서북쪽은 상창리(上倉里), 서쪽은 감산리(柑山里), 남쪽은 대평리(大坪里)와 접하고 있다.



창천리는 1674년(顯宗 15) 봄에 모슬포 출신 강위빙(姜渭聘)에 의해 설촌되었다. 이 곳에 삶을 개척한 강위빙은 1643년(仁祖 21)에 우면(대정) 모슬포(慕瑟浦:상모리)에서 강진(姜晋)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31세가 되던 1674년 봄에 대정현의 유향좌수(留鄕좌首)로서 관내를 순력 중인 제주절제사를 맞이하기 위해 정의, 대정현 경계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 때 강위빙 좌수를 만난 절제사는 강좌수가 고상한 인품임에도 의복이 초라한 것을 눈여겨 보고 아마도 빈궁한 살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측은한 생각도 가지고 있던 참인데 그 행사가 서진하다가 마침 창고천 머리에서 잠시 쉬어가게 되었다. 이 때 목사가 강좌수를 부르더니 지금의 창천초등학교 북측을 가리키면서 저 땅에 집을 지어 살면 필시 당대에 대정갑부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강위빙 좌수는 절제사의 말씀을 명시하고 집으로 귀가하자마자 장남이었지만 부모 슬하를 떠나서 창천리 160번지로 이주하였다.

그는 신천지나 다름없는 낯설고 물설은 고장에서 외로움을 참으면서 부지런히 땅을 일구어 정착하였다.

그 후 오태연(吳泰連), 김두강(金斗岡), 오중방(吳仲邦) 등이 입주함으로써 마을이 커졌다.²⁷⁾

창천리의 옛 이름은 창고내이다.

1709년 「탐라지도」에 창고천(倉庫川:창고내)으로, 18세기 중반 「제주삼읍도 총지도」에 창고천촌(倉庫川村:창고내마을), 1872년 「제주삼읍전도」(대정군 좌면), 1899년(대정군지도) 및 1899년 「대정군읍지」(방리) 등에 창천리(倉川里:창고내마을)로, 일제시 지도 등에 창천리, 창고내(倉庫川)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²⁸⁾

그러나 인근마을에서는 창구천(倉口川, 창구내)라 부른다. 또한 서재집(西齋集: 임징하, 1687~1730년)에는 창구천(倉口川)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⁹⁾

이 마을은 한때 창고내(倉庫川:창천리), 난드르(대평리), 성구물(상창리), 상예일부(상예2구)를 포괄하는 큰 마을이었다. 그러다가 1900년(光武 4)에는 상창리가 분리되었다. 그 후 1914년 면과 리의 구획을 측정할 때 마을 경계가 대부분 하천과 자연촌락으로 분할하게 됨으로써 상예2구는 좌면(중문면)에 예속되었다. 1915년 제주도(濟州島) 중면에 속하였으나 1918년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따라 창천리 1구는 현재의 창천리였고, 2구는 현재의 대평리로 나뉘었다.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가 되었다.

1948년 9월 1일에는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고 이듬해인 1949년 7월에 구제가 폐지되면서 다시 창천리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중간에 산과 냇물이 가로놓여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같은 마을로서 행정상 많은 애로점이 있어 1950년에 지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정상으로만 창천리와 대평리로 분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창천리는 뱀바리동(蛇盤洞), 사장밭동(射場田洞), 토산동(兎山洞), 물밭동(水田洞), 도산동 등으로 이루어졌다.³⁰⁾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27)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28)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29) 서재집(西齋集) 6권 雜著 隨雁錄.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4

30)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창천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가 되었다.

11. 대평리의 설촌유래

대평리는 표고 334.5m나 되는 군산(軍山) 남쪽에 위치하며 동은 하예동(下狍洞)이고 서쪽은 감산리(柑山里)와 접하고 있다. 북쪽은 같은 법정마을인 창천리(倉川里)이고 남쪽은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아담한 마을이다.



1007년(穆宗 10)에는 마을 북쪽에 군산이 용출하여 우뢰같은 소리가 진동하고 길은 운무로 뒤덮인 지 7주야만에 멈추었다.

조정에서는 태학박사인 전공지(田拱之)를 파견하여 이를 조사케 한 일이 있었다. 대평리는 3기의 고인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이 마을이나 주변마을에 오래전 신석기 시대에 사람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평리 마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260여년 전 일이다.

대평리는 구전에 의하면 1734(英祖 10)에 양기성(梁起盛)이 이 땅에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 양기성씨의 설촌 기념비는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햇마루 꼭대기에 세워져 있다. 이 비문에 따르면 한 노인이 꿈속에 나타나 통정대부(通政大夫)인 양공에게 일장일혜(一杖一鞋: 지팡이와 미투리)를 주면서 땅을 찾아 뜻을 펴라고 한다. 이에 양공은 혼자 전도(全島)를 돌아보던 중 군산에 올라 바라보니 노인이 제시한 땅이 바로 대평리임을 알고 여기에 터를 잡고 마을을 이루었다고 쓰여져 있다.³¹⁾

그 뒤에 이씨(李氏), 김씨(金氏), 강씨(姜氏), 장씨(張氏) 등이 들어와 거주하면

31) 향토지(남제주) 안덕지역. 제주대학교.1994

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³²⁾

대평리는 예부터 ‘난드르’와 ‘당캐’등으로 불리어 왔다. 「남사록」(권3)과 「제주삼읍지도」 등에 당포(堂浦:당캐)로, 「탐라순력도」(한라장축)에 당포(唐浦:당캐)로, 이두어시망(伊斗於時望), 이두봉(伊斗峰)으로, 정의군지도에 당포연(唐浦煙:당캐연)으로, 일제 때는 대평(大坪:난드르), 송항(松港:솔개) 등으로 표기되었다. 이 마을은 원래 예래(猯來:열리)에 속하였으나 150여년 전에 창천리에 속하게 되었다.³³⁾

창천리는 18세기 후반까지도 대정현의 좌면에 있었으나 1870년경에 대정군 중면이 신설되면서 중면에 소속된 것으로 보아진다. 이 때 대평리는 창천리의 일부였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으로 1914년 행정구역을 폐합할 때 대정군은 제주군으로 통합되었고 1915년 제주도(濟州島) 중면 창천리가 되었다.

1918년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따라 창천리 1구는 현재의 상천리로, 2구는 현재의 대평리로 나누어졌다.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道)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2구가 되었다.

1946년에는 예부터 불리던 ‘난드르’에서 유래된 ‘대평(大坪)마을로 불리었다.

광복 후인 1948년 9월 1일에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고 그 이듬해인 1949년 7월에 구제가 폐지되면서 다시 창천리에 포함되었으나 중간에 산과 냇물이 가로놓여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같은 마을로서 행정상 많은 애로점이 있어 1950년에 지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정상으로만 창천리와 대평리로 분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대평리는 본동 1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32)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33)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대평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가 되었다.

12. 감산리의 설촌유래

감산리는 제주의 남서부에 위치한 마을 이다.

감산리는 동쪽은 창천리와 대평리, 서쪽으로는 화순리, 북쪽은 상창리이고 남쪽은 끝없이 펼쳐지는 태평양의 푸른 바다와 접하고 있다. 그리고 동쪽에 신산오름과 서쪽에 산방산, 남쪽에 군산



(굴메오름)과 월라봉(드래오름, 북쪽에 병악이 위치하여 주야간 온도차가 적다고는 하나 감산천을 중심으로 산재한 오름들의 영향으로 제주의 해안과 산간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서리와 눈과 비가 많은 곳이다.

감산리는 주거생활의 기본요소인 물이 곳곳다 솟아나 위로 동천과 양재소, 도고샘, 즈배남송이, 비적골 등 수십곳에 이르는 다양한 용천수로 인해 주거생활이 이루어져 왔고 발굴되는 유물들로서 신석기시대의 압인문토기, 어골문토기, 단사선문토기, 이중구연토기 등의 생활유적과 바위그늘집자리나 고인돌 등 기원전후의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분포 발굴되고 있는 것으로 2000여년 전후에 이미 많은 사람이 이 지역에 대규모 거점취락 주거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부터 전해오는 감산리는 동은 예래(猯來), 서는 산방(山房), 남은 대해(大海), 북은 병악(並岳), 이라고 구전이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넓은 마을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지방에 많은 사람이 기원 전후부터 정착하였음을 출토되는 유물, 유적들로 보아 알 수 있으나 그에 연관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연원을 찾을 수 있는 이 마을 입촌씨족들은 1574년경 제주고씨(濟州高氏)인 고정상(高定常)이 서동 목은터에 입촌하였고, 1592년경 문화류씨(文化柳氏)인 몽성(夢星)이 통물동에 들어와 정착을 하면서 마을이 커졌다.

그후에 차차 강씨, 김씨, 문씨, 양씨, 오씨, 유씨, 이씨, 장씨, 진씨, 차씨, 홍씨, 한씨 등이 입주하였다.³⁴⁾

또한 이 마을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들추어 보면 1300(충렬왕 26) 탐라를 동서로 나누어 현촌을 설치하였는데 r 15개의 현 중에 산방현을 두었다. 이 산방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좀 더 고증이 필요하며, 감산리에서 2002년 발행한 감산리지에는 감산촌을 산방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조선왕조 실록에 1430(세종12) 6월 계유(癸酉) 4일에 제주 경차관(敬差官) 사복사 소윤 박호문(司僕寺小尹朴好問)이 아뢰기를 정의, 대정 두 현은 성내에 샘물이 없으므로 청컨대 정의현은 토산으로, 대정현은 감산으로 옮겨야 한다고 임금께 아뢴일이 있었다.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으나 이 때도 감산은 물이 좋고 입지적인 여건이 좋았음을 알 수가 있다.³⁵⁾

1439년(世宗 21)에 대정현 소속으로 감산리 1057번지 일대인 월라봉 앞 이도시(이두어시)에 호산봉수를 쌓았고 별장(別將) 6인과 봉군(烽軍) 12인을 배치하였다.³⁶⁾

왕조실록에 보면 1443년(世宗 25) 정월 병인(丙寅) 10일 제주안무사 기견(奇虔)은 치계(馳啓)하기를 ‘정의현과 대정현 성내에는 천맥(泉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읍성의 동쪽 16리쯤에 있는 감산리는 비록 동남쪽으로 높은 산이 있어서 성중(城中)을 내리누르기는 하지만 천수(泉水)가 용출하여 가물어도 마르지 않으며 궁시(弓矢)가 미치지 못하니 역시 이 곳에 현성을 옮길만 합니다’ 라고 하였다.³⁷⁾

1702년(肅宗 28)에 이형상 목사 때 그린 탐라순력도 중 한라장측에 예래와 대

34) 감산향토지. 안덕면 감산리. 2002

35) 조선왕조실록 중 탐라록. 제주문화방송. 1986

36) 제주도지 제1권. 제주도. 1993. 남제주문화창간호. 남제주문화원.2004

37) 조선왕조실록 중 탐라록. 제주문화방송. 1986

정 사이에 있는 마을은 감산 뿐이며 자단리(自丹里:동서광리)는 감산 서북쪽에 표기되어 있어 당시 감산리가 큰 마을임을 나타내고 있다.³⁸⁾

또한 사헌부 장령이었던 임징하(任徵夏, 1687~1730)가 소를 올려 탕평책을 반대하고 소론(小論)의 제거를 주장하다가 1727년(英祖3) 감산촌에 위리안치 되었다. 그는 겨우 감산에서 1년을 보내고 1728년에 다시 한양으로 압송되어 국문을 당하다가 옥사하였다.³⁹⁾

감산리는 「세종실록」(권48, 12년 6월 계유)에 감산(甘山)으로, 「탐라지」(제주목산천)과 「탐라순력도」(한라장축) 등에 감산(紺山)으로, 「탐라지」(대정현과원)에 통천(洞泉:통물)으로, 「해동지도」(제주삼현도)에 감산촌(紺山村)으로, 「호구총수」(대정우면)에 통천리(桶川里:통물마을)와 감산리(甘山里)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05년 이후 통천리는 감산리에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⁴⁰⁾

1910년 한일합방이 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창천리 일부를 통합하여 제주군 중면 감산리라 하였고, 1915년 제주도(濟州島) 중면에 속하였다.

1909년 8월 20일부터 중면사무소는 서광서리에 있었으나 1917년 3대 강두규 면장시에 감산리 149번지(동동)로 이전하였고, 1931년 4대 김봉규 면장 때 태풍으로 면사무소 건물이 전파되어 감산리 1498-1번지(서동)로 옮겼다.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할 때 ‘안덕계곡’의 ‘안덕’ 두 글자를 따서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이렇게 감산에 20여년이나 면치소를 두었으나 1938년 11월 12일 6대 오용국(吳龍國) 면장 때 화순리 311-1번지로 옮겨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⁴¹⁾

1945년 8월 15일에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자로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38) 감산향토지. 안덕면 감산리. 2002

39) 임징하(김익수 역)의 서재집. 2004. 김찬흠.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2002

40)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41) 안덕면지(마을편). 안덕면. 2006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감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가 되었다.